경찰·소방관·교사 등 공무원 올 1만2천명 더 뽑는다

2017 추경 어떻게 편성했나

이른바 공시생(공무원시험 준비생)이나 사범대 및 교대를 졸업한 임용고시 준비생들에게는 '가뭄에 단비 같은' 뉴스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하반기 경찰관과 교사, 소방관 등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에 나서기 때문이다.

보육교사, 노인돌보미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 노인일자리 3만개가 추가되는 등 올해 공공부문에서만 7만개가 넘는 신규 일자리가 공급될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의 '2017년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총 11조2000억원의 추경안에서 일자리 창출에 모두 4조2000억원을 쏟아붓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소득이 증대되면 소비가 늘어나고, 이는 다시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증가로 이어져 경제가 성장한다는 소득주도성장론을 펼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소득과 연계되는 일자리 창출이 필수적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전체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할 공공부문 신규 일자리는 모두 7만1000개가 생긴다.

우선 중앙 공무원 4500명, 지방 공무원 7500명 등 국민안전 및 민생 관련 공무원 1만2000명이 하반기에 추가 채용된다.

구체적으로 중앙공무원은 경찰관 1500명, 부사관(1160명)과 군무원(340명) 1500명, 근로감독관·집배원·인천공항 제2터미널 종사자 1500명 등이다.

지방공무원은 사회복지공무원 1500명, 소방관 1500명, 교사 3000명, 가축방역관·재난안전 등 현장인력 1500명을 뽑을 예정이다. 경찰은 지구대와 파출소 등 현장인력 위주로 채용하고, 소방관은 119 구급대 탑승인력과 2교대 해소를 위한 인력을 우선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교사 3000명 중에는 특수교사 600명과 유치원교사 800명이 포함돼 있다.

다만 공무원 1만2000명의 경우 채용공고와 시험, 면접 등의 전형절차를 고려하면 연말께 채용이 마무리되는 만큼 추경에는 채용절차에 필요한 비용 80억원만 우선 반영된다.

中企 청년 3명 채용하면 1명 임금 지원

중소기업 고용 지원

정부가 청년 3명을 추가로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세 번째 직원의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상담·직업훈련·알선 등 통합취업지원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대상 중 직업훈련을 마친 취업준비생에게 월 30만원의 구직지원수당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5일 발표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기업 고용 지원안을 내놨다.

정부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종의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새로 채용하면 세 번째 직원의 임금을 연 2000만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안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등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의 중소기업이다.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동시에 성장 가능성이 큰 4차 산업혁명 유관 업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신재생·발광다이오드(LED) 응용산업 등 성장 유망업종과 11대 신산업 분야 업종 등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해 구체적인 우선 지원 대상 업종을 선정할 방침이다. 오는 8월 500명, 9월 1500명, 10월 3500명 등 총 5000명을 선정하며 기업당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방교부금 3조5000억 투입 고용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정부가 3조 5000억원 규모의 지방교부금을 투입해 지역 일자리 창출을 전격 지원한다.

평균보다 낮은 임금의 일자리를 만들어 전체 일자리를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 정책도 도입된다.

기획재정부는 5일 발표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 이런 내용의 지역 일자리 창출안을 내놨다.

정부는 추경예산 11조2000억원 중 3조5000억원을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 보강에 쏟아붓기로 했다.

이중 일반적인 지방행정 재원으로 사용되는 지방교부세는 1조7000억원, 교육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8000억원이다.

지방교부금은 지방공무원·교사 채용·훈련 등에 우선 사용된다. 교사는 양호·특수·장애인 교사 중심으로 증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3조5000억원 규모로 지방재정이 보강되면 지방직 공무원을 예정대로 채용해도 여력이 생기는 만큼 최대한 추가 일자리 창출에 힘써달라고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올해는 매년 지방예산 편성 때마다 논란이 돼온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부담이 없어 지방재정교육교부금도 전액 일자리 창출을 위해 쓰이게 된다.

일자리 나눔·사회통합 모델 적극 육성

광주형 일자리 도입

임금을 낮춰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도입도 추진된다.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일자리 나눔과 사회통합 모델 사례로 앞세우면서 도입을 약속한 정책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임금 수준보다 낮은 연봉 4000만원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어 구직자들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대기업 투자를 유인해 일자리를 더 늘리는 선순환 구조가 핵심으로 광주시가 지난해부터 추진 중이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도입을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 사업도 벌일 예정이다. 공용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역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하는 등 낙후된 도심을 지역의 산업 여건에 맞춰 재생하는 사업 추진도 추진된다.

정부는 6개 뉴타운해제지역 주거환경관리, 가로수주택정비 사업을 시행하고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에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지역발전특별회계의 재원을 보강해 재원 부족으로 지연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은퇴 아버지·청년 아들 창업 땐 1억 지원

세대 융합형 창업

정부가 은퇴한 아버지 세대의 경험과 청년 아들 세대의 아이디어를 결합한 창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5일 발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보면 정부는 은퇴자의 경험, 노하우를 청년의 아이디어와 결합하는 '세대융합형 창업'을 신설해 총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세대융합형 창업은 은퇴 세대와 청년 세대의 일자리 고민을 한 번에 해소하기 위한 제도다. 아주대 총장 출신으로 청년 취업·창업에 관심이 많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후보자가 내놓은 아이디어이기도 하다.

올해 9~12월 서울, 경기, 충청, 호남, 영남권 등 권역별로 은퇴 세대와 청년 세대 창업자들이 만나는 박람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후 세대융합형 창업지원센터 1곳당 유망하고 성공 가능성이 큰 세대융합형 창업팀 10개를 선발해 각 팀에 1억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치매 조기 예측 기술 첫 개발

조선대 한국인 표준 뇌지도 완성

치매를 조기에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이 처음으로 개발됐다.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은 연령대별로 한국인의 표준 뇌지도를 완성하는 데 성공했고, 이를 토대로 치매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연구단은 3년에 걸쳐 광주지역 65세 이상 남·여 1044명을 대상으로 뇌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해 정밀 분석한 뇌지도를 만들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얼굴이 변하듯이 뇌도 노화 정도에 따라 변형이 일어난다. 특히 청각 정보를 처리하는 측두엽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위축하는데 정상적인 뇌지도와 비교, 분석을 통해 정상적인 노화인지, 질병으로 인한 노화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됐다.

치매 환자는 정상인보다 해마 등 뇌의 주요 부위가 줄어들거나 모양이 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단은 또 치매 예측 조기진단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데 성공해 전국 5개 대형병원에 보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인의 뇌지도와 치매 예측용 소프트웨어가 개발됨에 따라 치매의 조기진단은 물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치매 검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치매 검사를 하려면 MRI 촬영 등 300여만원이 들지만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건강검진에도 적용할 수 있어 저렴하게 치매 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연구단은 임상 유효성 평가를 거쳐 시범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연구단은 또 이번에 개발한 치매 예측 진단 프로그램에 대해 국제특허를 내고 본격적으로 치매 진단 의료기술을 수출할 계획이다.

조선대 치매국책연구단은 2013년 설립됐으며 50여 명의 연구원이 치매를 연구하고 있다. 치매 예측기술 및 뇌지도 구축사업은 2019년 6월까지 국비 280억원 등 30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한국인을 비롯한 동양인에 최적화된 치매 예측 및 조기 진단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

AI 위기경보 최고단계 '심각' 격상

내일 0시부터 전국 일시이동 중지명령 발동

정부가 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통상 AI가 잘 창궐하지 않는 초여름인데도 제주와 경기 파주, 경남 양산, 부산 등지에서 잇따라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AI 위기경보 체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이뤄져 있다.

위기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된 AI 방역대책본부가 범정부적 중앙사고수습본부로 확대 개편되고, 추가 확산이 우려될 경우 국민안전처와 협의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 발생지역과 연접지역에 설치된 거점소독시설을 전국의 모든 주요 도로에 설치해 이동통제를 강화하고, 상황에 따라 생닭과 생오리, 계란 등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가금류 판매시설에 대한 강제 폐쇄명령도 내릴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신임 이사장에 지선 스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신임 이사장에 지선스님(72·백양사 방장·사진)이 임명됐다.

5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절차를 거쳐 신임 이사장에 지선스님을 임명했다.

지선스님은 10일 6월항쟁 기념식을 치른 후 임기 만료 등의 이유로 공석 중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진을 행정자치부에 제청하는 것으로 공식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은 이사장 임면은 행자부 장관이, 이사 임면은 이사장 제청으로 행자부 장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선스님은 "우리 사회 구석 구석에 민주정신이 스며들 수 있도록 민주정신 교육사업을 추진하겠다. 필요하면 정부와 국회에 쓴소리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선스님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상근하지 않고 주요 현안이나 행사가 있을 경우 출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담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태광공인중개사

상 가 건 물

1. 쌍촌동 5층 상가건물 대200㎡ 매11,8억원(보9,500 월500 포함)
2. 월곡동 4층 상가건물 대471㎡ 매14,8억원(보1,5억 월780 포함)
3. 용봉동 4층 상가건물 대468㎡ 매11,8억원(보1,2억 월650 포함)
4. 신가동 3층 상가건물 대273㎡ 매9,3억원(보8,000 월450 포함)
5. 신창동 3층 상가건물 대1,050㎡ 매50억원(보6억 월2,000 포함)
6. 북구 우산동 5층 상가건물 대336㎡ 매18억원(보1,2억 월900 포함)
7. 월산동 6층 상가건물 대397㎡ 매17억원(보1억 월1,000 포함)
8. 서석동 4층 상가건물 대120㎡ 매4,8억원(보5,000 월180 포함)

상 가 주 택

1. 산정동 3층 상가주택 대180㎡ 매8억원(보6,000 월370 포함)
2.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360㎡ 매6,8억원(융2,7억 보9,000 포함)
3. 장덕동 3층 상가주택 대310㎡ 매10,3억원(보3,7억 월280 포함)
4. 일곡동 3층 상가주택 대250㎡ 매5,9억원(보6,000 월240 포함)

공 장 / 토 지 / 기 타

1. 용두동 북광주IC 인근 대로변 공장4동 대6,150㎡ 매58억원
2. 진도군 군내면 나리 바다조망 임야48,600㎡ 매6,6억원
3. 신가동 생산녹지 답745㎡ 매3,65억원
4. 하남동 일반상업지역 대로변 대770㎡ 매23억원
5. 광산구 도천동 자연녹지 전1,207㎡ 매2,9억원
6. 산월동 자연녹지 택지조성완료 대290㎡ 매3,3억원
7. 장성군 남면 녹진리 1종일반주거 전2,115㎡ 매2,8억원
8. 매곡동 대광로제비앙 1층 상가 주출입구코너 71㎡ 매5,2억

부동산 매물 상담 환영
010-2572-4663 홍창경
북구 문화예술회관 근처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공고 제2017-14호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임원(이사장, 비상임 이사) 공개모집공고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비상임 이사 직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공단을 이끌어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7년 6월 5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임용예정직위 및 인원

임용예정직위	선발인원	주요 직무내용
이사장	1명	공단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며 업무를 총괄
비상임 이사	4명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공단의 주요 경영 정책을 심의 · 의결

2. 응시자격

●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공단 정관 제16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서 공고일 현재 다음 자격요건 중 최소한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이 사 장】
가. 종업원 100인 이상 기업체에서 대표이사 또는 이사(등기 상근이사)의 직위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청무직, 계약직 공무원 등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의 부교수 이상 또는 공공 및 대학 연구기관의 선임 연구원급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 출연기관의 임원급으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그 밖에 지방공기업이나 금융분야 등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및 기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비상임 이사】
가. 세무사, 회계사 등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
나. 5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 공기업 경영 및 기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임원의 결격사유】
「지방공기업법」 제60조(임원의 결격사유)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임용자의 임용계약 및 보수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3년(1년 단위 연임가능)
● 보 수
- 이 사 장 : 광산구청장과 체결하는 경영성과계약에 의함
- 비상임이사 :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회의 참석수당 등 실비만 지급

4.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7. 6. 7. ~ 2017. 6. 22. (09:00~18:00) ※ 단 토 · 일 · 공휴일은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마감일 접수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1번길 28 빛고을국민체육센터 1층 광산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062) 960-9934

※ 기타 직무수행요건, 제출서류, 전형방법 및 유의사항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gsfmc.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 길 65년
光州日報
예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